Gary Meadors 박사, 신의 뜻을 아는 것, 세션 16, 저명한 경쟁 모델, Blackaby, Smith 및 Friesen

© 2024 Gary Meadors 및 Ted Hildebrandt

마지막 강의, 강의 16, GM 16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노트에 있습니다. 노트가 필요하고, 오늘은 노트 팩으로 주로 작업할 겁니다. 비디오 슬라이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궤도를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대한 성경 신학,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대한 대중적 견해의 노트 팩입니다. 저는 이것을 웨이드와 와팅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것을 슬라이드의 부록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연구할 수 있도록 다른 견해를 제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 관점은 사실 네 번째 관점입니다. 세 가지 관점에 대한 책이 출판되었을 때, 어떤 이유에서인지, 편집자는 Friesen과 협력하여 제 관점이 기본적으로 Friesen의 관점과 비슷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글쎄요, 그 점에서 교회와 더 이상 거리가 먼 것은 없습니다.

그들이 제 자료를 충분히 읽지 않았는지, 아니면 문제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 견해는 Friesen과 매우 다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견해에 대한 개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당신이 주요 책을 읽을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저는 당신이 The Three Views라는 책을 읽을 것을 제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그의 견해를 적절하게 제시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Friesen의 의사결정과 신의 뜻에 대한 원래 출판물은 아마도 그가 한 가장 좋은 프레젠테이션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25주년 기념 책을 냈을 때, 저는

그것이 원본만큼 강력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본을 읽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아마 중고책이나 그런 종류의 물건에서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간략하게 개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노트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제 눈에 문제가 있고, 리더도 몇 개 있지만, 작은 글씨를 읽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이걸 해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메모를 받아 적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점에 대해 따라가겠습니다.

인기 있는 옵션, 무게를 재고 원하는 것을 찾았습니다. 소개 후에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모의 첫 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대한 견해는 이 주제에 대한 책만큼이나 많습니다. 그러나 문헌은 보통 세 가지 주요 패러다임으로 나뉩니다. 모든 옵션을 표현할 수는 없지만, 크리겔이 출판한 책이 그 세 가지를 제공하고, 저는 여기에서 그것을 제공했고, 다른 것들을 얻을 수 없다면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견해는 한동안 특히 남부 침례교회에서 매우, 매우 인기 있었던 책을 쓴 부자 팀인 블랙어비, 웨슬리안 전통을 따르는 스미스, 그리고 성경 교회 사람인 게리 프라이슨에게서 나왔습니다. 이 중고책의 가치는 각 저자가 서로에게 반응한다는 점인데, 그래서 거기에는 어느 정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 세 사람 사이에 대화가 오가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제 견해가 확실하고 중요한 네 번째 견해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견해를 보고 제가 제시한 모델과 비교해보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모델이 더 도전적이라는 것을 기꺼이 인정할 것입니다. 특히 평신도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깊은 방식으로 성경을 공부해야 한다는 의미에서요.

리더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듣고, 노트를 읽고, 이런 것들을 제가 비판할 견해와 비교해보면 자명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단지 조사일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스스로 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단일 의지 관점, 급진적 주관주의라고 부릅니다.

블랙어비족은 아마도 케스윅 운동이 주장하고 많은 미국 교회, 특히 독립 전통에 영향을 미친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프리젠이 댈러스에서 쓴 논문에서 반대했던 내용인데, 나중에 이 논문이 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따라서 블랙어비족에 관해 읽고 듣는 내용은 그 특정 운동의 만연한 주관주의, 급진적인 주관주의를 가장 잘 나타냅니다.

다음은 Blackaby의 핵심 가정입니다. 이 관점의 핵심 신념은, 이것은 인용문인데, 신이 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뜻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하여 그들이 따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기서 당신이 신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신은 당신이 그와 함께 걷는 친밀함에서 당신에게 그것을 계시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자는 자신의 행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좋아요. 글쎄요, 여러분은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하는 것을 여기서 들었을 겁니다.

우선, 우리는 삶에서 발견될 수 있는 개별적인 개인적 의지라는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의무는 말씀에서 계시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신은 당신을 찾습니다. 신의 뜻을 행하기 위해 미리 밝혀야 할 비밀의 길을 당신은 찾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주관적인 과정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이 계시한다고 말하고, 그것은 내용의 계시이고, 나는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읽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신념과 일치하여 신자는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인식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성경 자체와의 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흑백 모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찾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 내면의 헌신적인 삶을 찾는 격려를 발견할 것입니다. 이제, 그것은 미국 교회에서 매우 두드러졌고,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부분이 영국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매우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흑인에게 책을 읽어줄 때, 당신은 말씀에서 그것을 들으라는 격려를 받지 못합니다. 오, 그들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지만, 당신은 그 밖에서 그것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지만 밝혀지지 않은 부분, 즉 변화된 마음과 가치 체계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그들은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주관적인 감정을 갖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급진적이거나 만연한 주관주의라고 부릅니다.

네 번째, 삶의 경험적 측면은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아는 문입니다. 글쎄요, 저는 성경이 정반대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성경의 어휘는 당신의 경험적 측면을 강화하는 발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는 것은 자극입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 읽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는 것이고, 그런 종류의 자극이 여러분이 어떤 영역으로 옮겨갈 수 있는 자극이 됩니다.

따라서,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찾고 있는 성경의 단어를 발견한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당신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맥락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성경의 모든 본문은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아는 것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그것은 즉시 우리가 따라야 할 모델입니다. 맥락적 경계는 없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의미와 적용의 완전한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양털을 꺼냈습니다. 글쎄요, 시도해 보세요. 직접적인 계시를 구하는 것은 삶에서 알아야 할 것에 대해 장려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것이 당신이 나에게서 들었던 것과 내가 성경 본문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과정에 관련된 윤리에 관해 풀어놓은 것과는 정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성령이 현재 하나님과 그의 뜻을 계시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나는 그것에 대해 매우 반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고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글쎄요, 만약 신의 음성이 성경이라면, 신의 성격을 알고, 성경을 읽고 신의 성격을 이해한다면, 저는 그것에 동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의미하는 바가 그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블랙비 모델에 대한 비판. 블랙비 일족은 경험적 추론이 실제로 신인지 아니면 단지 그들 자신의 경험에 대한 해석인지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으면서 경험적 추론의 근거를 폄하한다고 저는 말합니다.

모든 것은 경험 중심입니다. 이것에 대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도 그들과 실제로 논쟁할 수 없습니다. 변화된 마음과 가치 체계가 아닌 경험에 삶을 기반하는 사람과 논쟁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경험적 측면을 기독교적 삶을 사는 열쇠로 강조하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데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당신에게 개인적으로 계시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입으로만 전수되었습니다. 누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텍스트를 이해하는 과정은 원래 의도된 텍스트의 맥락적, 해석적 분석이 아니라 순전히 주관적이고 경험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당신의 내적 감정과 경험을 충족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믿음으로 그런 식으로 달리지만, 그것은 성경이 자신을 제시하는 방식이 아니며 우리가 삶을 살도록 격려하지도 않습니다. 세 번째, 성경 본문과 이야기는 표 형태로 사용되며 우리의 경험적 견해를 뒷받침하는 증거 본문이 됩니다. 그러므로 결정을 내리려고 하고 지혜를 원한다면, 그냥 성경을 펴서 어디든지 읽기 시작하면 조만간 당신을 격려하고 당신이 이미 생각하던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결론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조금 다르게 인도하거나 무언가 할 수 있지만, 여전히 경전을 풀어서 변형된 마음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경전을 사용하여 자신의 경험적 삶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원래 의도된 텍스트의 의미, 왜 시간을 낭비하겠습니까? 네 번째, 글쎄요, 다시 이 주제로 돌아가서 세 번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Blackabee의 저술에는 전문적인 성경 인식이라고 부를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텍스트에 대한 비판적이고 신중한 연구가 없습니다.

신학적, 주해적 의식은 블랙커비에게는 낯선 것입니다. 사실, 행복한 목사가 되려면 그런 합리적 요구 사항을 거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삶에는 삶이 더 쉽고 즐거워 보이는 측면이 있지만, 그것이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넷째, 그들의 시스템은 내부 목소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세계관 가치와 관련된 양심이며, 그것은 Blackabee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삽입하는 것은 당신이 듣는 법을 배워야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직접적인 내용 입력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다고 말할 때, 저는 항상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것은 약간 놀림조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내면의 목소리, 나는 작은 목소리가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할 뿐이라는 것은 신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상상력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스템은 이러한 내면의 목소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비판할 이유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자기 인증 중에서, 그들은 완전히 자기 인증하는 경험적 주장입니다. 그들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새로운 계시를 주시거나 성경에 부록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고 확언합니다. 그는 자신의 말씀을 우리 삶의 세부 사항에 적용하고 계십니다.

이제, 엇갈린 진술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미 본문에 없는 것을 공급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한 쪽을 유지하려고 하면서, 포기하고 실제로 그 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느님께서 새로운 계시를 제공하고 있다고 확언합니다.

그들은 그가 새로운 계시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글쎄요, 그럼 성경에 없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냥 떠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설명하는 단어의 적용은 문맥 기반이 아니라 증거 텍스트입니다. 우연히라도 찾고 있는 것과 관련된 단어를 성경에서 찾으면 됩니다. 그것이 당신의 지침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복화술사의 손에 있는 더미로 홍보하는데, 복화술사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입니다.

기억하세요, 신의 뜻은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경전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삶의 다른 측면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와 우리가 활동하는 지역 사회의 상황을 통해 일치할 것입니다 . 다섯 번째, 계시의 행위, 그리고 저는 거기에 개인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개인적 계시의 행위는 가정됩니다.

계시가 없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역에 대한 적절한 신학적 평가 없이 주관적으로 검증되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의 예화는 그 단어가 무엇을 말하는지 아는 책임감 있는 과정이나 성경을 해석하는 과정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어 연관성입니다. 여기 성경에 있는 단어가 있고, 여기 당신의 삶이 있습니다. 그 단어는 당신의 삶과 관련이 있으므로, 따라서 그것을 시도하세요. 본문에서 우리의 경험으로의 단어 연관성은 그것이 영의 직접적인 말씀이라는 가정 하에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가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을 따르는 방법에 대해 말하는 것과 해석에서 뒷받침될 수 없습니다. 오래된 격언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는 사람은 결코 주장이 있는 사람의 자비에 맡겨지지 않습니다.

저는 많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저는 이런 생각 방식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과는 논쟁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질문할 질문을 찾고, 이것이 신의 목소리라는 것을 어떻게 아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내면의 감각을 알 수 있을까요? 신이 정말로 당신에게 말하는 것이지, 다른 당신의 목소리가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갑옷을 움푹 패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듣는 목소리가 신의 목소리라고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버지니아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그 세미나에 한 젊은 여성이 있었는데, 대학생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신이 그녀를 직장으로

인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집을 나설 때, 정지 신호에 다다르면 신의 말씀을 듣습니다.

좌회전해야 할까? 우회전해야 할까? 직진해야 할까? 그녀는 그 목소리를 듣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는 수년간 그렇게 해왔고, 신이 매일 직장에 가는 길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사고를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다른 길을 택했지만, 그것은 신이 저를 보호해 주시는 인도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녀가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도록 설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신이 어떻게 소통하는지에 대한 거짓된 개념을 세웠고, 그것이 그녀의 삶을 모든 면에서 인도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인생에서 있기에 좋은 곳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 Blackabee 모토는 급진적인 주관주의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영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케스윅 운동은 그 영역에서 살았습니다. 미국에서의 초기 기독교 경험은 많은 교회를 이런 종류의 사고방식으로 감염시켰지만, 다행히도 우리는 마침내 그런 종류의 함정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관계적 관점, 기독교 실존주의는 고든 스미스와 함께 등장합니다.

스미스, 블랙어비를 읽은 후 스미스를 읽는 것은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대한 진정한 참여를 얻을 수 있고, 우리의 죄 많은 자아를 인식하는 동시에 우리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미스의 작품을 살펴보시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제가 언급했듯이, 그는 웨슬리안과 기독교 선교 연합 서클에 속해 있으며, 그들의 신의 뜻에 대한 견해는 고든 스미스의 견해와 거의 일치합니다.

스미스의 모델에는 몇 가지 핵심 주장이 있습니다. 첫째, 그는 우리가 신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행동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결과적인 능력과 함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창조물의 본질이 직접적인 과정을 통해 세세하게 관리하지 않고도 작동하도록 허락하십니다.

보시다시피, 그것은 케스윅과 블랙어비의 직접적인 모순입니다. 신과 공동체와의 관계는 의사 결정을 위한 매트릭스를 만듭니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의사 결정은 우리가 신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우리는 생각하고, 느끼고, 존재를 선택하고, 신에 의해 세세하게 관리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으며, 그는 더 많은 것을 말할 것이지만 성경과 그 세계관, 그리고 공동체에서의 우리의 관계에 의해 관리됩니다.

웨슬리안 관점에서 공동체는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저는 목사로 부름받았습니다"라고 말하고, 교회에 가서 "저를 성직자로 임명해 주세요"라고 말한다면,

저는 디모데전서 3장에 답합니다. 저는 목사의 직분을 원합니다. 그는 그것을 감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사람의 주장에 절을 해야 합니까? 아니요.

디모데를 읽어보면 그 사람의 부름은 주장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 사람을 평가하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들이 목회에 있어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공동체로서의 교회.

지금은 아닐 수도 있고, 다른 훈련이나 다른 경험을 한 후에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갑니다. 교회는 하고 싶은 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생각 방식을 따르는 교회를 찾을 때까지 거리를 따라 다른 교회로 갑니다. 스미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블랙은 그럴 수 있지만 스미스는 아닙니다.

스미스는 공동체가 신의 뜻을 구별하는 데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가 그런 세계관과 가치 과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스미스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특정한 뜻을 찾는 청사진적 관점을 거부합니다.

그 청사진 관점에서 그는 그 명명법을 사용합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주관적인 접근 방식에서 그들은 당신이 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신의 뜻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훑어보았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스미스 자신도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는 성경이 여기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좋은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단지 더 많은 경험적 측면을 가져오지만, 다행히도 그것은 훨씬 더 보호된 경험적 측면이고, 도메인의 어두운 면보다 훨씬 더 통제된 경험적 측면입니다. 그는 계속합니다.

내가 말했듯이, 내 대답은 나를 괴롭혔다. 스미스는 죄가 인간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긴장감을 적절하게 반영한다. 우리는 사는 만큼 분별하고, 사는 만큼 분별한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분별하는 과정이 진행 중이에요. 그는 그것을 당신의 그리스도인적 성숙, 성화,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의 일의 과정으로 제시할 거예요. 거기에는 좋은 점이 많이 있어요.

동시에, 저는 돌아와서 말하고 싶습니다. 진짜 통제는 삶의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세계관, 사고방식, 가치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셋째, 의사결정은 우리의 의사결정에 신성한 참여가 필요할 만큼 친밀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맥락에서 가장 잘 이해됩니다. 글쎄요, 저는 신이 우리의 의사결정에 관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는 그의 섭리를 행사하십니다. 그는 우리를 인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공동체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스미스는 경험적 측면의 웨슬리안 전통에 많은 것을 더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사각형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그 경험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미스의 말을 듣는 동안, 우리는 그 작품을 듣고 있는데, 아마도 웨슬리언이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했을 법한 방식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것은 최종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의사 결정은 매우 친밀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맥락에서 가장 잘 이해됩니다.

스미스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성경적 이해에 의해 어떻게 인도되는지에 대한 이유는 우리의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글쎄요, 저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의 기도의 삶,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우리의 삶, 그리고 평신도로서든 직업인으로서든 사역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공동체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방식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스미스는 명확한 신학적 격자에서 글을 쓰는 반면, 블랙어비는 격자가 부족하고 오로지 경험적 격자에서 글을 써서 성경을 그들의 목적에 맞게 구부립니다. 결과적으로, 누군가가 스미스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제가 부르듯이 그의 이성적 주관주의를 존중할 이유가 있습니다. 제 크기에 관해서는, 저는 약간 다른 용어를 사용했지만, 이성적 주관주의는 제가 스미스에 대해 말하는 방식입니다.

스미스 자신도 주관적 지각에 대한 주장에 매우 신중합니다. 그는 많은 거래에 브레이크를 겁니다. 네 번째, 위의 맥락에서 스미스는 신이 말씀하신다고 단언하지만, 이 연설은 미묘하고 복잡합니다.

스미스는 신의 말씀을 듣는다는 주장을 피한다. 그는 분별력이 우리가 더욱 온전히 그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신앙과 겸손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라고 단언한다. 신의 음성을 분별하려면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며, 음성이 자동적으로 권위적이라고 가정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그래서 그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과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웨슬리안은 공동체에 강력하게 확장합니다. 저는 공동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단지 권위의 문제일 뿐이지만, 성경은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에서 언급했듯이 특정한 방식으로 공동체에 권위를 부여합니다. 스미스는 증거 본문과 이야기가 될 성경 본문을 규범적 지침 클립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경고합니다.

이런 관행은 성경을 우리 자신의 지각에 강제로 집어넣음으로써 성경을 남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당신은 내가 말한 것과 많은 메아리를 듣게 되는데, 주관적인 영역에 권위를 부여하는 것을 빼고, 스미스는 거기서도 조심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비판해 봅시다.

스미스를 읽으면 신중한 신학적 성찰이 일어나고 있다는 인상을 즉시 받게 됩니다. 스미스의 모델은 경건한 삶에 의해 인도되는 관계적 성장 모델에 기반한 합리적인 주관주의입니다. 스미스는 특정한 의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개인적인 의지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발견되어야 하며, 블랙어비의 모델에서 그 의지는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 미리 발견되어야 합니다 .

하지만 그는 내부 안내 과정을 긍정합니다. 저는 내부 안내 과정을 거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제 관점에서 그것을 정의할 뿐입니다. 그 내부 안내 과정은 양심과 정신과 관련이 있으며, 그것이 우리의 사고 과정 내부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미스와 공통점이 훨씬 더 많지만, 여전히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스미스 모델에 대한 비판. 스미스를 읽으면 신중한 신학적 성찰이 이루어졌다는 인상을 바로 받습니다.

그것은 합리적인 주관주의이고, 그는 내가 방금 언급했듯이 내적 지침을 확언합니다. 스미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비유와 그것이 세상을 관리하는 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로 시작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스미스의 주관주의는 명확하지만 조심스럽습니다.

영에 대한 제 강의에서 우리가 한 스미스의 증거와 영의 촉구에 대한 견해. 스미스는 죄가 인간의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성경이 의사 결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블랙커비보다 훨씬 더 신중합니다. 그러니 고든 스미스의 저서를 읽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것과 대조해 보세요. 그러면 성경이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는지, 아니면 어디로 인도하지 않는지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강조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에 직접적인 가르침으로 나와 있지 않다면, 당신은 암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암시는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읽힐 수 있고, 성경이 당신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실제로 성경에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말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구성물이 신학적 관점에서 더 타당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조합하는지에 대해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큰 서사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 Gary Friesen과 제가 기독교적 실용주의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프리센의 인기 있는 책, Decision-Making in the Will of God, a Biblical Alternative to the Traditional View. 그것은 그가 Dowell Seminary에서 쓴 논문에서 발췌한 것으로, 미국의 가톨릭 운동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그것은 영국에서 왔습니다.

그것은 매우 주관적이고 헌신적인 운동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살았고, 이러한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버지니아 주 노퍽의 묘지로 나가서, 거기에는 십자가와 많은 것들이 있었고, 거기에 앉아서 해가 뜨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해가 뜨자, 그림자가 지는 방식이 그들에게 큰 헌신적인 느낌을 주었고, 그들이 하루를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때때로, 십자가의 그림자가 그들이 앉은 곳을 따라갔고, 그것은 마치 신의 행위와 같았습니다. 매우, 매우 주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Friesen은 그것을 따라갔고, 저는 흑인 신앙으로 표현될 그 관점이 받아들일 수 없으며 성경 자체가 가르치는 것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확실히 지적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Friesen의 초점, 오른쪽의 네 번째 줄은 한 면에서 너무 좁아서 더 광범위한 신학적 전통을 대표할 수 없었습니다. Friesen은 Keswick 운동을 쫓았는데, 그것은 Blackaby의 원형이었을 것입니다 . Blackaby는 아직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까지 성경 교회의 주관적인 교파였을 것입니다. 케스윅 운동은 그 교회들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많은 독립적인 환경에서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J. 오스월드 송버드와 다른 사람들은 케스윅 운동에서 큰 역할을 했고, 그들이 말씀을 제시하는 방식에서 매우, 매우 주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그 책들을 읽었고, 저는 기독교 생활 초기에 그 책들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게 된 대로, 저는 그들의 모델에 따라 제 삶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델은 신의 지시가 아니라 자기 지시의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많은 침례교도, 독립 성경 교회 전통은 순진하게도 그 주관적인 운동에서 널리 퍼진 가정을 받아들였습니다. 프리젠이 와서 개인적 의지는 없고 주권적이고 도덕적인 의지가 있으며, 그가 결정을 내리기 위해 제시한 모델이 있다고 지적했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데 , 폭탄선언이었어요. 저는 당시 남부의 독립 침례교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졸업생들이 제가 윤리 수업에서 프리젠의 책을 모듈로 사용한다고 너무 큰 소리로 불평해서 거의 해고당할 뻔했어요 . 와우.

제 말은, 그들이 고집을 부린 이유는 Friesen이 성경에서 성령을 빼냈다고 주장했기 때문인데, 그건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가 미국 독립 교회 운동에 기어들어온 주관주의에서 그들이 채택한 것, 때로는 모르게 채택한 것에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이상을 넘어섰다고 생각하지만, 완전히는 아닙니다.

79년부터 83년까지 저는 프리젠의 책을 사용했고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하면서, 저는 프리젠에서 빠진 것들이 저에게는 성경이 강조하는 것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 모듈에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고, 변화된 마음이라는 사실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기독교의 한 작은 부분에 대한 대응에 너무 몰두했기 때문에, 그가 그것에 너무 많은 신뢰를 준 것 같습니다. 그는 이것에 대한 칼빈주의적 견해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류 개신교도들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관주의가 저쪽으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리스마적 집단조차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는 초점을 맞춰야 할 매우 좁은 문제에 집중했지만, 책이 출판되면서 제 생각에는 좋은 생각이 아니었을 수도 있는 방식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Friesen의 핵심 가정은 무엇일까요? 좋아요, 첫째, 그는 구체적인 의지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가 말한 맥락에서 중요한 요점이었고 ,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에 대한 신의 뜻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폭탄과 같았고, 그것은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 미리 그 정보를 찾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을 기도와 질문으로 보냈지만, 성경 공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말하며, 여러 다른 문제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지도 아래 여러분에게 적합하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길로 관리될 것입니다.

좋아요, 그는 무슨 말을 했나요? 글쎄요, 그는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 여기 네 가지가 있고, 저는 그의 원본 책에서 거의 모든 것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의 가장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이 명령하면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명령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저는 그가 계시록의 진행과 우리가 그 명령에 대해 언급한 설명과 처방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말한 적이 없다고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명령형에 대해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령형이 나를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청중을 위한 명령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해 쓰여졌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배우지만, 당신은 그것을 당신에게 직접 전달하는 데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동의합니다.

명령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명령인지 알아내고, 그렇다면 우리는 따르는 게 좋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 차트가 그 요점을 보여줍니다.

명령이 없는 곳에서 신은 우리에게 자유와 선택할 책임을 줍니다. 글쎄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도 저는 프리젠의 글에서 자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야기할 적절한 모델을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성에 얽매여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 체계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틀렸다면, 우리는 틀렸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 특정 영역에서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혜에 있습니다.

그는 신이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고 말합니다. 글쎄요, 그는 어떻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나요? 신이 지혜를 준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는 스스로 주관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혜가 성경 본문을 판단하는 데서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잠언이 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의 지혜 문학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율법을 인용하지 않지만, 율법의 원칙을 취해 삶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지혜는 이렇게 파생됩니다. 지혜는 그 자체의 지식이 됩니다. 그것은 단지 영적인 편의주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도덕적이고 현명한 것을 선택했을 때, 우리는 모든 세부 사항을 해결해 줄 주권적인 신을 신뢰해야 합니다. 글쎄요, 우리는 많은 신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도덕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혜에 대한 그 부분은 특히 비판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혜에 관해 이야기한 것, 지혜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지혜 문학을 연구하는 것의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지혜 문학은 의사 결정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방금 책을 한 권 집어 들었습니다.

내 책상 위에 있습니다. 지혜의 해석학. 이제, 방금 받았어요.

저는 그것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진술을 좋아합니다. 지혜의 해석학.

당신은 지혜를 연구해야 하고, 당신이 지혜라고 주장하는 것도 똑같이 연구해야 합니다. 아니면 당신은 주관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잠시 동안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복잡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너무 복잡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미안해요.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 체계를 따르려면, 그것을 만들어내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방식에 마음을 맞추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주석. 우리는 어떻게 책임을 제정할까요? 글쎄요, 우리는 그것을 제정하고, 우리는 그렇게 할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계 안에서 자유롭습니다. 당신은 그 경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준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그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글쎄요, 그는 직접적인 계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적절한 설명이 주어지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제 생각에는 가정된 것 같습니다.

Wise는 성경적으로나 철학적으로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Friesen의 프레젠테이션에는 철학적인 부분이 없습니다. 윤리적 이론 부분도 없습니다.

철학과 윤리는 성경이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을 때 그리스도인을 위한 지침 체계의 일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판단을 내리기 위해 사전 구성 추론의 의미를 다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프리젠 모델에 대한 비판.

Friesen과 저는 몇 가지 의견이 일치합니다. 제가 말했듯이, 저는 그의 책을 홍보했고, 그 책에 좋은 말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직장에서 거의 해고당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Friesen과 저는 다른 입장입니다.

우리는 삶의 문제와 그러한 것들에 대한 지혜를 추론하는 방법에 있어서 지구의 다른 지역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Friesen은 종종 작은 세상에서 살고 있으며, 신의 뜻이라는 주제에 대한 다소 단축된 관점입니다. 예를 들어, Keswick 운동과 심지어 Black Label 운동도 전통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미국 기독교 문화 내부의 변칙적 관점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영국의 일부에 영향을 미쳤지만, 영국의 성서 학자들이 그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거의 쫓아냈습니다. 세 번째, 프리젠에 대한 비판은 그가 말한 것보다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내가 하나님의 뜻 개념을 조언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를 적절하게 할당하거나 다루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Friesen은 지혜라는 용어에 저작권을 부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지혜라는 용어를 사용하므로 그의 진영에 속해야 합니다.

글쎄요, 저는 그와 많은 면에서 동의하지만, 저는 그의 진영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다릅니다. 그는 지혜를 성경적 또는 철학적 구성으로 풀어내지 않습니다.

그는 결코 주장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주장할 뿐이다. 현명한 일을 하라. 글쎄, 무엇이 현명한 일인지 아는 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그는 266페이지에서 지혜의 길 목록을 제시하지만, 그것은 내가 실용주의라고 부르는 것을 낳을 뿐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결정으로 이어지는 이성의 선을 낳지 않습니다. Friesen은 현명한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현명한 일은 무엇일까요? 글쎄요, 결국 제가 생각하는 현명한 일이 됩니다. Friesen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지혜에 새로운 주관주의가 탄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Friesen은 신의 주권적 의지를 언급하지만, 이것을 신의 섭리 개념과 적절하게 연결하지 않습니다.

프로비던스는 제게 그렇지 않아요. 꽤 중요한 서두. 제 페이지를 보면, 죄송하지만, 시력이 나쁘고 망막에 문제가 있어서 털이 엉키네요.

그러니 여기서 여러분의 용서와 관용을 구합니다. 그는 죄로 더럽혀졌을 때 인간 본성이 어떻게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저는 타락이라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급된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쟁기질을 한 지 꽤 됐거든요. 그 책을 여러 번 쟁기질했고 그 책에 대해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 꽤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그를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는 성경이 다루는 것처럼 지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윤리의 모델로 표현하듯이요. 하지만 대신, 그것은 매우 실용적이 됩니다. 그가 장려하는 것은 새로운 영적 편의주의와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복종시키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의 두 번째 책이 첫 번째 책보다 25년 후에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훨씬 더 주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책을 철저히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책을 읽었을 때, 저는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맙소사, 그는 주관주의에서 더 멀리 나아갔지 주관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프리젠은 신의 주권적 의지를 언급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을 신의 섭리 개념과 연결시키지 않고 이것이 자유라는 개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저는 우리가 자유롭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성에 의해 묶여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성의 경계 안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도 자유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반대할 수 없습니다. Friesen이 자유를 고집하는 데는 장점이 있지만, 자유의 본질과 범위에 대한 그의 생각은 훨씬 더 비판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그는 죄에 오염되었을 때 인간 본성이 어떻게 기능할 수 있는지 다루지 않습니다.

Friesen은 마지막 요점을 사용하지 않고 성경을 넘어 결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합리적 모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는 또한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꽤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결정을 다룹니다. 그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현재 문화적 도전 중 일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도전 중 일부는 그가 릭 로스와 함께 글을 썼을 때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프리센은 성경을 넘어 결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합리적 모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견고하다면, 결정권자가 부수적으로 선택해야 합니까? 저는 그렇다고 말하는 것이 순진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세계관과 가치 모델이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는 철학과 윤리에 대한 인식과 그것이 기독교적 사고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독교 운동에서 윤리 책이 있는 선반이 몇 개 있는데, 저는 그 것들의 깊이를 파고들지도 않았고, 그가 그것을 자신의 사고에 적절하게 시작하거나 포함시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아이러니하게도, 프리젠이 그의 이론의 핵심인 의사결정의 수단으로서의 지혜에 도달했을 때, 그는 이러한 형태의 주관성으로 되돌아간다. 현명한 일을 하라.

영적으로 편리한 일을 하세요. 그의 세 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명령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시나요? 글쎄요, 그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경계, 우리가 아는 것의 경계, 타락한 본성의 경계, 섭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확신의 경계 내에서 선택할 자유를 주십니다.

경계가 많습니다. 자유는 절대적으로 무료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점에서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암시된 또는 심지어 창조적인 구성,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위반하지 않도록, 우리가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그의 두 번째 판에서 그는 원래 판보다 훨씬 더 주관적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기반이 부족해서 그냥 무시하겠습니다. 저는 그것들이 케스윅 운동, 절대적으로 만연한 주관주의의 재진술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미스, 존경합니다. 그의 자료를 읽는 걸 좋아합니다. 거기서 많은 걸 배우지만, 그가 가는 만큼은 못 가죠.

하지만 그 자신도 주관적 영역에 얼마나 깊이 들어가는지에 대해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프레이저와 함께, 저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저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저는 신의 뜻에 대한 책을 쓰기도 전 수십 년 전에 시작하도록 자극을 받았고, 이 강의를 수년, 수년, 수년 전에 했습니다. 30년이나 40년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보다 더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책은 70년대에 나왔습니다.

저는 73년부터, 실례합니다, 61년까지 가르쳤습니다. 지금은 제가 스스로 무엇을 가르쳤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습니다. 일찍, 사실 79년에서 83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논문을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있었던 때입니다. 그의 책은 78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둘 다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그것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제 세계관과 가치 구조를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우리를 더 나은 방향, 더 정의된 방향, 더 객관적인 방향으로 인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방향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반대합니다. 당신이 그것에 어떻게 반대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목사가 공부하는 것처럼 공부할 수 없는 사람이 많아요. 목사가 공부한다면요.

많은 사람이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상황에서 A에서 Z까지 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요. 그리고 당신도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 직업적 목회자가 등장하고, 그들이 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블랙 라벨 모델은 경건주의적 전임자들처럼 선의이지만 부적절하고 심지어 결함이 있습니다. 이 모델은 일련의 가정에서 벗어나 신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덜 전문적인 신학적 모델로 넘어갑니다. 성경은 거의 모든 수준에서 학대를 받았습니다.

블랙 라벨 모델은 실제로 건전한 성경 신학을 훼손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생각합니다. 스미스는 주관주의의 영향을 엄청나게 줄입니다. 그의 글은 또한 주관주의의 투쟁을 정직하게 폭로합니다.

어떻게 인간적 수준에서 절대적인 확신 없이 권위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까? 이성은 토론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지만, 질문에서 타당한 이성적 노선인 해결책까지 이성적 노선을 보여줄 수 있는 모델을 실제로 제공하지 못한다. 그들은 텍스트에 대한 피상적인 표면적 독해가 아닌 이성적 노선을 비판적으로 연구했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

이제, 첫째, 저는 특정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타락의 영향과 그로 인한 마음의 어두워짐은 스미스가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견해 중 어느 것에도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타락의 노에틱 효과는 어떻게 다루어집니까? 우리는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다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루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질문과 관련하여 성경을 매우 신중하게 풀어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특히 Blackaby Label 모델에서 교리의 개념으로 활용됩니다.

그것은 성경 신학에서 자리 잡은 용어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개념을 취하고 그것을 교리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성경이 당신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에 대해 성경에 알려줍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비판적 사고보다는 증거, 텍스트, 방식입니다. 일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리더십이 그런 종류의 일을 하고 그 과정에서 그들의 소집을 도울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제 생각에, 크게 실패했습니다. 주관적인 전통에서 성경은 너무 작습니다.

너무 작습니다. 성경은 방대한 책이며, 우리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 그것을 쫓는다면 우리의 의문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주관적인 전통에 대한 프리젠의 비판은 타당하지만, 성경 가이드에 대한 그의 통찰력은 근시안적입니다.

그는 확실히 그것을 언급합니다. 그는 심지어 몇 가지 예를 제시하지만, 그 예들은 이성의 노선과 적절한 연결이 부족합니다. 사실, 일부 텍스트는 표면 너머로 해석적이지도 않으며, 그것은 나쁜 예가 됩니다.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리고 해석적으로 많은 작업이 필요합니다. 어느 시점에서 Friesen 자신은 특히 지혜에 대한 주관주의로 돌아갑니다. 그의 모델이 지혜가 무엇인지 다루는 패러다임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 본문에서 지혜를 어떻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또한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직접적이고 암시적인 구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비판적 세계관이 확장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Three Views 권은 실제로 미국에서도 종교적 전통의 작은 부분만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Blackaby-Keswick 운동에 참여하고, Wesleyan and Christian Missionary Alliance 그룹에 참여하고, Friesen에 참여합니다.

글쎄요, 장로교도 없고, 개혁교도 없고, 성공회도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에 없나요? 그런데도 그것이 우리 미국 기독교 문화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방법의 총체로 제시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러한 전통을 대표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그 책은 우리의 욕구에 따라 평가됩니다. 그리고 저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 이러한 것들 중 어느 것에서도 매우 두드러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변화된 정신과 가치 체계의 발전, 그리고 성경을 주의 깊게 연구하여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제 생각에 성경이 이러한 것들을 모델로 삼는 방식입니다.

대부분 지도자들에게 모델이 됩니다. 고대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에게 직접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에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제와 선지자가 그런 로마 가톨릭과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지혜를 얻기 위해 국가 내의 신의 대변인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서 어떤 종류의 카트를 사야 하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쉐보레 카트, 포드 카트, 아니면 다지 카트. 그냥 상식을 좀 쓰세요. 아니면 자유롭게 선택하세요.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그런 방식으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포드를 사기 위해 무거운 대출을 받고 많은 빚을 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쉐보레를 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항상 당신의 결정을 내리는 방식에 혼합되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아요, 리더의 세계관과 가치 모델.

지도자들은 교회가 결정을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성경적, 철학적, 윤리적 모델을 제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성경에서 직접 가르치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요. 저는 교회 전체에 대한 그 부분을 삽입했습니다. 웨슬리안 사각형은 많은 교단에서 사용합니다.

인정됩니다 . 리더의 모델은 성경 번역본을 읽고 성경이 가르치는 방식과 관련하여 문제를 정리하는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이 두 가지 모델입니다 .

이러한 패러다임은 우리가 마주치는 문제에 대한 성경적 분석을 통해 우리를 이끕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모든 성경 번역에 대해 불평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것들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면, 그것들은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당신이 생각해야 할 곳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버전들 간의 차이점, 때로는 큰 차이점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 성경적 신자들은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가르침 설명을 넘어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가 내리는 대부분의 결정은 증거 본문에 의해 다루어집니다. 이제, 분명한 도덕적 명령, 즉 우리가 공유하는 성경의 명령은 꽤 쉽지만, 어려운 일은 더 철저한 패러다임이 필요한 일입니다. 자유는 당신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영혼을 설명함으로써 쫓기고 제한받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많은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의 자유는 우리의 본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결정을 내리는지 설명하는 이성적 근거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설명하는 데 자신감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종류의 성경 연구의 산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렌즈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신학적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서두에서 그것에 대해 조금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것에 열려있으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고든 스미스의 글에 있는 것을 많이 감사히 여기는데, 그것은 제 글과 정확히 같지는 않지만, 저를 더 열려있게 만들고 삶의 경험적 측면에서 제 자신에 귀를 기울이도록 밀어줍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사야가 말했듯이, 율법과 증거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섞이지 않았다면, 우리는 갈 곳이 없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제가 의역한 것입니다.

성경의 지혜, 4번째는 독특한 문학 장르입니다. 그 대부분은 성경적 사고방식의 산물입니다. 성경, 잠언, 그리고 다른 지혜 장르를 인용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토라를 인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의 개발에서 그것의 가르침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훨씬 더 많은 작업을 하고 싶은 한 분야입니다. 저는 그 문헌을 읽고 싶습니다.

저는 그들이 토라를 풀면서 생각했던 바를 말하고 싶습니다. 때때로, 그 연결은 비교적 명확할 수 있지만, 연결은 무엇인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과 그들의 세계관과 가치를 취하고, 성경이 반드시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 것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세계관을 가져와서 그 환경에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에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지혜는 독특한 문학 장르입니다. 그것은 성경적 사고방식의 산물입니다. 성경적 지혜는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 사고방식으로 포화된 산물입니다.

당신의 포화는 당신의 경험이 아닙니다. 당신의 포화는 당신의 연구의 산물입니다. 지혜는 사실 성경에서 지식의 한 형태입니다.

현명한 일을 하려면 왜, 왜, 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정의된 이유 없이 그저 자신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현명한 일일까요? 설명할 수 없다면, 성경에서 자신의 결정에 이르기까지 이해의 흐름을 보여줄 수 없다면, 그것이 직접적인지, 암시적인지, 창의적인지 알 수 없다면, 당신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알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고통스럽게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 꽤 높은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신의 기준은 항상 꽤 높지 않나요? 그래서 제 네 번째 요소는 더 훌륭한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신의 뜻을 아는 것은 자신의 세계관과 가치를 인생에서 내릴 수 있는 결정에 적용하는 과정 입니다 .

오늘날 미국 문화에서 저를 괴롭히는 것은, 그리고 다른 문화권도 아마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을 텐데, 성경에 관해서는 문맹인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문맹인 교회가 있을까요? 물론, 모든 사람이 주요 도덕 항목을 알고 있습니다. 그건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생각 없이도 그런 것들을 잡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문맹인 교회를 가지고 있고, 저는 문맹인 성직자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삶의 결정에서 교회를 멘토링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설교하고, 가르치고, 회중에서 지도자가 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경험의 리더들만이 아니라, 시편과 끝없는 합창의 리더들만이 아니라,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 것 외에는 신학적 내용이 없는 리더들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성경, 언어, 신학, 역사와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적절하고 완벽하게 훈련받은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들은 회중에게 그 지혜를 전하고 사람들이 삶의 도전을 관리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불멸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개별 구절의 의미를 놓쳤을 때 모든 구절에서 같은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책을 읽는 데 몇 달이 걸립니다. 책에 대해 무언가를 배우기 때문이 아니라, 텍스트에서 읽은 단어의 연관성과 암시를 통해 전체 성경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작가가 무엇을 했고, 그 작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려고 했는지 묻지 않고 같은 주제로 바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관주의가 초기 미국에서 목격되었고 영국에서 약간 더 나은 잔류적 성격을 가진 기독교를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강인한 개인주의와 우리의 자유 개념, 그리고 교회에 가는 것만 괜찮다는 개념, 그리고 나머지는 스스로 해결될 것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변화된 마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당신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세계관과 가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당신이 직면한 결정을 처리하기 위해 부를 수 있는 적절한 채널로 인도하는지 생각해보세요.

이 강의는 국제적입니다. AI가 어떤 언어로 이것을 썼는지, 당신이 듣고 있는 언어도 모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세요.

그리고 신은 우리의 한계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종류의 한계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든 우리 자신에게든요. 저는 제가 읽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책을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게 제 강점이 아니어서 조금 질투스럽습니다. 그럴 수 있기를 바라지만, 저는 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저는 몇 가지 일을 했고, 많은 일을 했지만, 제가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에는 거의 미치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것을 이해하기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갈망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일꾼, 일꾼을 보여주기 위해 공부함으로써만 해결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디모데는 바울처럼 직업적 그리스도인 일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당신은 여전히 그 텍스트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공부하여 당신이 하나님께 승인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당신의 옛 그리스도인보다 더 나은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런 식으로 도우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우리가 세상

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인 사명을 전진시키는 데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